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조 유 진¹⁾

인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오 지 현²⁾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로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서 수용태도에 어떤 요소나 요인들이 포함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중학생 349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고,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문항 양호도와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3가지 요인구조가 적합함을 발견하였고 그 하위요인을 문제해결적 수용반응, 처벌적 무시반응, 과잉수용반응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문항 양호도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과 Cramer의 V 지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 모든 문항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의 α 값을 산출하였고 결과 .85에서 .93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어머니 정서수용태도 예비척도의 요인과 문항이 적절함을 의미한다.

주요어 : 어머니의 정서 수용태도, 어머니-청소년 자녀 간 정서적 상호작용, 어머니의 정서 사회화 행동, 척도 개발

1) 인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교신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수료, 성모마음정신과 심리치료사

(E-mail : maple282@nate.com)

I. 서론

어머니는 자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대상으로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이는 정서적 반응을 통해 형성된 자녀의 정서적 패턴과 틀은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돕고 어떻게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학습하게 된다(Denham & Kochanoff, 2002; Eisenberg et al., 2003). 이는 모-자녀 관계에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도울 뿐 아니라 자녀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Gottman, Katz, & Hooven, 1996).

이렇듯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에 관한 중요성이 밝혀짐에 따라 연구자들은 보다 구체적인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emotion-socialization behavior)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Eisenberg, Cumberland, & Spinard, 1998).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이란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 정서에 대한 토론, 정서 표현 등이 포함된다(Eisenberg, et al., 1998). 특히, 자녀의 정서 경험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태도는 자녀의 정서 이해와 정서 표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추후 정서,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Dunn, Brown, & Bearsall, 1991). 이와 관련하여 학자들은 자녀가 긍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보다 슬픔, 두려움,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경우에 더욱 더 어머니와 자녀의 갈등은 증폭되고 정서적 교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보고한다(Dix, 1991; Dunn & Brown, 1994; Siegel & Hartzell, 2004), 즉, 자녀가 부정적 정서 경험에 대한 어머니 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이다(Gottman, 1997). 예를 들어, 자녀의 부정

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을 감소시켜 정서조절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반면, 지지적 반응은 적응력 있고 유능한 사회적 행동 유형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Fabes, Leonard, Kupanoff, & Martin, 2001; Fabes, Poulin, Eisenberg, & Madden-Derdich, 2002).

요컨대,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태도는 자녀의 정서,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보다 최근에는 청소년 시기의 모-자녀 관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청소년시기에도 여전히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가 자녀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hortt, Stoolmiller, Smith-Shine, Eddy, & Sheeber, 2010; Yap, Allen, Leve, & Katz, 2008). 예를 들어, 청소년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비지지적 반응을 보일 경우 자녀의 문제 행동 및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Katz & Hunter, 2007; Shortt et al., 2010). 또한,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와 관련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가족 내에서 기능적이고 지지적 반응을 많이 하는 부모 일수록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Klimes-Dougan et al, 2007; Stocker, Richmond, Rhoades, & Kiang, 2007). 뿐만 아니라 공감적인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정서표현을 격려하고 이는 자녀의 자기존중감과 건강한 자기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trayer & Robers, 2004; Trumpeter, Watson, O'leary, & Weathington, 2008)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청소년으로의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맥락적 변화 등이 일어나는 시점으로 모-자 관계에서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변화 또한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시기에는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독립하고 자율성을 획득하고자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어머니와의 새로운 갈등과 역동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다(Juang, Lerner, Mckinnery, & Eye, 1999; Yap, Allen, & Sheeber, 2007). 다시 말해, 혼란스럽고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 간에는 정서적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러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출에 대한 수용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청소년의 분노, 슬픔,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태도는 청소년기의 정서,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탐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의 제언을 근거로 청소년기 자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정서 수용태도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며 특히, 모-자녀 관계가 변화를 보이는 시점인 청소년기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내 선행연구들(김은경, 도현심, 김민정, 박보경, 2007; 서혜린, 이영, 2008; 조수정, 도현심, 김상원, 2010)에서 어머니의 정서 수용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PACES(Parent Attitude Children's Expressiveness Scale)를 번역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각 요인별 문항수가 적어 신뢰도에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가설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기에 문화적으로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문항들이 있다는 비판

을 받고 있다(김은경 외, 2007; 서혜린, 이영, 2008; 조수정 외, 2010). 또한, 하위요인이 수용-통제의 두 요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측면의 정서 수용태도를 살펴보기에는 한계점을 지적받고 있다(Fabes et al., 2002). 이후 개발된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는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다차원적인 하위요인을 구성하고 있으나 요인구조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개발되었고 유아기에 일어날 수 있는 가설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예. 내 아이가 병원에서 주사 맞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 아이가 자신의 생일날 친구로부터 별로 원하지 않은 선물을 받고 화를 낸다면, 내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버려서 아이가 나에게 막 화를 낸다면 등). 뿐만 아니라 PACES와 CCNES의 하위요인이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들에서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다(김은경 외, 2007; 김지연, 남은영, 2011; 조수정 외, 2010; Tao, Zhou, & Wang, 2010).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기존 척도의 하위요인으로서는 우리나라 어머니의 전반적인 정서수용태도를 설명하지 못할 가능성을 논의하였다(김은경 외, 2007; 조수정 외, 2010). 이는 즉, 기존 척도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된 정서수용태도 척도가 필요하며 또한 청소년 자녀를 둔 모-자녀 관계 특징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한 이

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서수용태도의 다차원적 하위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 척도 구인을 구성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하였는데 이는 양육행동이나 공감행동에 있어서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제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자녀의 주관적 경험이 중요하다는 보고(조용주, 2010; 임정하, 정옥분, 2004; Trumpeter et al., 2008)를 근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보고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 중에 자신을 좋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경향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상기한 관점에 근거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예비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예비 척도의 개발을 통해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서 수용태도에는 어떤 요소나 요인들이 포함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청소년기 자녀 양육 시 효율적인 부모 역할을 제시하며 모-자녀 간 정서적 상호작용에 관련된 연구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 예비척도의 구인타당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 예비척도의 문항 양호도 및 신뢰

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청소년기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 및 인천 지역의 중학교(남녀공학 1곳, 남중 1곳, 여중 1곳)에서 1, 2, 3학년 각 4학급씩 총 420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349)*

구 분		n(%)
성별	남	165(47.3)
	여	184(52.7)
학년	중학교 1학년	119(34.1)
	중학교 2학년	120(34.4)
	중학교 3학년	110(31.5)
가족 관계	모두 계신다	344(98.6)
	어머니만 계신다	5(1.4)
어머니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이하	8(2.3)
	고등학교졸업이하	210(60.2)
	전문대 졸업	14(4.0)
	대학교 졸업이상	117(33.5)
어머니 연령	40세 미만	67(19.2)
	40 ~ 50세 미만	237(67.9)
	50세 이상	45(12.9)
생활 수준	아주 못 산다	3(.9)
	못 사는 편이다	23(6.6)
	중간이다	241(69.0)
	잘사는 편이다	74(21.2)
	아주 잘 산다	7(2.0)
	무응답	1(.3)

부를 배포하였고 이중 395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94%이다, 이 중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349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측정 도구

어머니 정서수용태도 예비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문항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정서수용태도와 관련한 문헌 및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96문항을 제작하였고 이에 대해 2차에 걸쳐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문헌조사에서는 특히, 최근 정서수용태도 연구에 쓰이고 있는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Fabes, Eisenberg, & Bernzweig, 1990)의 하위요인과 Gottman, Katz와 Hooven이 개발한 PMEP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Gottman, Katz, & Hooven, 1997)의 평가 항목을 주요한 이론적 근거로 살펴 보았으며 이와 더불어 서양의 정서 문화와 동양의 정서 문화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특징들 또한 고려하여 하위요인을 구성하였고 문항을 제작하였다(김은경 외, 2007; 임정하, 정옥분, 2004; Tao, et al., 2010).

이를 통해 최종 예비문항은 총 63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최종 예비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며, 하위요인으로는 감정대처 반응, 감정전환 반응, 감정격려 반응, 비난 반응, 감정축소 반응, 과민 수용 반응, 과잉보호적 수용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감정대처 반응은 자녀가 부정적 감정을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태도로 자녀의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반응이다. 감정전환 반응은 자녀의 부정적 감정을 풀어주고 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개입하는 태도이며 감정격려 반응은 자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이다. 다음으로 비난반응은 자녀의 부정적 감정표현을 제한하기 위해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처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며 감정축소 반응은 자녀가 표현하는 부정적 감정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평가 절하하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이다. 여섯 번째 과민반응은 자녀의 부정적 감정 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과도한 불안과 불편함을 나타내는 태도이며 마지막으로 무조건적 수용반응은 자녀의 표현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적인 수용을 보이는 태도로 자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조절 및 대처방법을 알려주지 못하는 반응이다.

3. 연구 절차

예비문항의 개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정서수용태도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그림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 먼저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에 관한 문헌들을 탐색하고 관련 구인들을 찾아내었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와 국외 연구자의 어머니 정서수용태도 관련 척도들을 통해 가설적인 하위 요인과 예비문항의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7개의 하위요인 개념을 근거로 하여 각 요인과 관련한 96 문항을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이 과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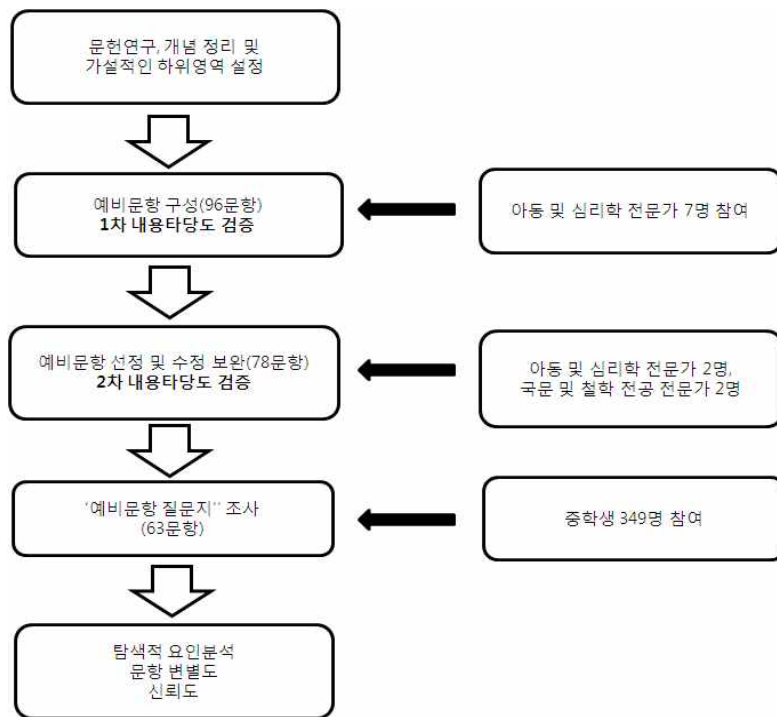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절차

통해 구성된 요인과 예비문항 내용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학 및 심리학 관련 전문가 7명(상담심리학과 교수 1명, 사회복지학과 교수 1명, 교육학 박사 1명, 심리학 박사 1명, 아동심리치료전공 박사 1명, 아동심리치료전공 박사 수료 1명,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1명)에게 내용평정을 실시하였다. 예비문항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첫째, 각 문항이 각 요인의 구성 개념에 적합한지 둘째, 문장이 간결하고 명확한지 셋째, 표현이 적절한지를 ‘매우 적절하다’의 5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1점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매우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나타난 문항과 전문가 두 명 이상이 문항의 적절성을 보통이하(3점, 2점)로 평정한 문항들

을 제외하여 총 78문항을 추출하였다. 또한, 1차 내용타당도 검증에서 점수 평정 이외에 주관적 평가란에 제안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반영하여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수정한 문항들의 2차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아동 복지학 전공 교수 2명과 논의를 통해 평정하였다. 또한, 청소년 응답자가 각 문항의 내용이 지닌 의미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평정하기 위해 국문학, 철학 전공 관련 전문가 2명에게 정서수용 태도 하위요인의 개념을 설명한 후 문항의 내용이 그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지, 문장이 간결한지, 표현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평정하게 하였다. 2차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총 63문항을 추출하였다.

최종 예비 척도 개발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를 기초로 구성된 63문항 중 적합한 요인과 문항을 선정하기 위하여 중학교 1,2,3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설문지 배부는 각 학교 교사에게 개별연락을 통해 동의를 구한 뒤, 학교에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직접 방문한 경우에는 연구자가 직접 교사에게 질문지 실시방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안내문과 함께 질문지를 보내고 전화로 교사에게 실시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배포된 질문지는 우편과 직접 방문으로 회수하였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분석하였다. 첫째, 어머니 정서수용태도 척도의 최종 예비 문항들에 내재되어 있는 요인구조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원상관행렬을 검토하고 KMO(Kaiser-Meyer-Olkin)의 표본적절성 측정치, 반영 상관계수,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통계치를 산출하여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지 확인하였다. 공통요인모형에서 기초 구조의 추출을 위해 주축요인추출(principal axis factoring)을 사용하였고, 요인구조의 회전은 사각회전(direct oblimin)방법을 실시한 결과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해 직각회전(varimax)방법으로 재실시하였다(이순목, 2000).

둘째, 요인분석 후 구성된 어머니 정서수용태도 척도 하위요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문항의 양호도를 살펴보기 위해 요인별 총점을 기준으로 상·하위 30%의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문항별 점수가 상하집단에 따라 변별이 가능한지를 분석하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카이제곱 검증 값과 Cramer의 V지수를 산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절차에 거쳐 선정된 최종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 α 값을 산출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1.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정서수용태도 예비척도의 구인타당도

구인타당도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정서수용태도 예비척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KMO(Kaiser-Meyer-Olkin)의 측정치를 알아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통계치를 산출하여 요인분석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였다. KMO수치는 문항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표본의 상관행렬이 요인분석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KMO값은 .946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문항으로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12395.142 ($df=1953, p<.001$)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요인분석이 가능한 공통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 척도의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치 값(eigen value), 스크리 도표(scree plot), 누적분산비율, 해석가능성의 기준을 모두 고려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eigen value)가 1이상을 충족시키는 요인은 6개가 추출되었으나 3개 요인을 제외하고는 설명변량이 미미하였다. 또한, 스크리 도표(scree plot)에서는 2요인과 3요인사이에서 고유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누적분산비율을 바탕으로 보면 3요인까지가 전체 분산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3개의 요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요인의 수를 3으로 지정하고 요인구조를 산출하였다. 또한, 요인구조의 회전은 사각회전(direct oblimin)방법을 실시한 결과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해 직각회전(varimax)방법으로 재실시하였다(이순목, 2000).

분석 결과 후 요인 내 문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최대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이 .40 이상인 문항과 타요인과 .30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보이지 않는 문항을 추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해석 차원에서 다른 문항과 어울리지 못하는 문항을 제외시키는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39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들 3개 요인의 총 설명변량은 42.2%로 나타났다으며, 최종 요인구조와 요인 부하량은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이들 세 하위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

째 요인은 자녀가 부정적 감정을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지지적 반응을 보여주는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감정을 우선적으로 이해하며 수용해주고, 자녀가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코칭(coaching)해주는 것과 관련되므로 ‘문제해결적 수용 반응’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어머니가 비지지적 반응을 보이는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즉, 자녀가 표출한 부정적 감정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비난을 하고 자녀의 문제 및 고통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와 관련되어 ‘처벌적 무시 반응’이라고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자녀의 부정적 감정 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불편해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와 관련된다. 이러한 행동은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감정표현을 표출하는 상황을 회피하고자 자녀의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이해 없이 과잉보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 해당 요인은 ‘과잉 수용 반응’으로 명명하였다.

구성요인 간 상관

다음은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하위요인

표 2. 어머니 정서수용태도 예비척도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1 (문제해결적수용반응)	-		
요인2 (처벌적 무시 반응)	-.58***	-	
요인3 (과잉수용반응)	.03	.37***	-

*** $p < .001$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하위요인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요인1(문제해결적 수용 반응)과 요인3(과잉수용 반응)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요인1(문제해결적 수용 반응)과 요인2(처별적 무시반응)는 부적상관을 보이며($r=-.58, p<.001$), 요인2(처별적 무시반응)와 요인3(과잉 수용반응)은 정적상관을 보였다($r=.37, p<.001$). 단, 요인1과 요인 2는 중간 상관 정도로 나타났고, 요인2와 요인3은 낮은 상관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2.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정서수용태도 예비척도의 문항양호도 및 신뢰도

문항 양호도

다음은 어머니 정서수용태도 예비척도의 문항 변별도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 값과 Cramer의 I 지수를 산출하여 검토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요인별 총점을 기준으로 상·하위 30%의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문항별 점수가 상·하 집단에 따라 변별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고자 카이제곱 검증 값과 각 문항점수와 두 집단 간 상관관계 정도를 보여주는 Cramer의 I 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문항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Cramer의 I 지수는 .35에서 .67 사이로 나타나 척도 문항의 구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윤로, 유시순, 2009). 즉, 본 예비척도는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 수준에 따른 상하집단을 의미있게 변별해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표 3. 어머니 정서수용태도 예비척도의 하위요인 신뢰도 및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요인	문항수	신뢰도	<i>M</i>	<i>SD</i>
문제해결적 수용반응 (요인1)	17	.93	52.60	12.49
처별적 무시반응 (요인2)	11	.89	26.28	8.07
과잉 수용반응 (요인3)	11	.85	24.93	7.27

는 문항들이 각 하위척도를 측정하기에 양호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선정된 하위요인들의 내적 일치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문제해결적 수용반응은 .93, 처별적 무시반응은 .89, 과잉 수용반응은 .85로 모두 높은 내적 일치도를 나타냈다. 하위요인의 신뢰도 및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 예비척도를 구성하여 이를 토대로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 척도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대해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4. 어머니 정서수용태도 예비척도의 문항 변별도 및 평균, 표준편차

번호	평균	표준 편차	χ^2	변별도 지수
1	3.48	1.07	74.95***	.46***
8	3.01	1.09	106.72***	.55***
11	3.46	1.10	107.96***	.56***
15	2.88	1.02	110.02***	.56***
19	3.29	1.12	113.71***	.57***
22	3.17	1.04	128.86***	.61***
26	3.14	1.07	84.95***	.49***
29	2.81	1.08	173.31***	.71***
32	3.07	1.03	145.11***	.65***
36	3.11	1.01	137.94***	.63***
39	2.89	1.01	87.50***	.50***
43	3.10	1.01	155.05***	.67***
46	3.16	1.05	132.38***	.62***
47	3.04	1.06	143.57***	.64***
50	3.16	1.00	110.90***	.47***
57	2.68	1.10	76.94***	.48***
60	3.19	1.08	167.53***	.58***
34	2.36	1.13	145.98***	.65***
23	2.32	1.07	106.05***	.55***
16	2.29	1.00	86.76***	.50***
48	2.44	1.12	136.19***	.63***
61	2.28	1.15	95.46***	.53***
41	2.69	1.11	124.64***	.60***
2	2.19	0.94	94.24***	.52***
6	2.25	1.17	77.33***	.47***
9	2.52	1.02	99.87***	.54***
27	2.34	1.09	98.05***	.53***
31	2.66	1.11	140.44***	.63***
7	2.16	1.09	88.15***	.50***
10	2.24	1.03	44.06***	.36***
14	2.37	1.06	110.20***	.56***
35	2.65	1.12	63.15***	.43***
42	2.64	1.13	117.68***	.58***
51	2.24	1.04	95.54***	.52***
52	2.18	1.02	109.11***	.56***
56	2.22	1.01	133.74***	.62***
62	2.10	1.00	104.26***	.55***
63	2.00	1.03	102.01***	.54***
49	2.33	1.05	114.70***	.57***

*** $p < .001$

표 5. 어머니 정서수용태도 예비척도의 문항 내용 및 요인 부하량

예비문항번호	문항내용	요인		
내가 부정적 정서(화, 자증, 불안, 슬픔 등)를 겉으로 드러내거나 이와 관련한 얘기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 나의 어머니는.....		1	2	3
29	내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조언을 해주신다	.74		
22	내가 스스로 진정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70		
43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조언을 해주신다	.69		
8	나의 마음이 편안해 질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신다	.69		
46	내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게 용원을 해주신다	.68		
36	내가 대처 할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신다	.67		
15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67		
60	나와 함께 고민해 주시는 편이다	.66		
19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아시는 것 같다	.65		
50	내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신다	.64		
32	나의 마음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삼으신다	.64		
26	나의 기분이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	.62		
1	나의 문제를 함께 살피고 해결책을 고민해 주신다	.62		
11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60		
47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기분을 이해하시는 것 같다	.58		
57	내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함께 짜 주신다	.55		
39	내게 과거의 행복하고 즐거웠던 일을 생각하라고 격려해 주신다	.52		
34	나의 기분을 알려고 않으시고 어머니 생각만 말씀 하신다		.68	
23	내가 얘기를 해도 다른 일을 하시거나 집중을 하지 않으신다		.64	
61	나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내 탓이라고 말씀하신다		.62	
16	‘신경 쓸 일이 아닌데 왜그러냐’ 라며 관심을 크게 보이지 않으신다		.59	
48	나의 말이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신다		.58	
41	내 기분은 무시한채 내 실수나 결점을 지적 하신다		.56	
2	나의 얘기를 듣지도 않으시고 막연하게 ‘좋아지겠지’ 라고 하신다		.55	
6	내게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화부터 내신다		.52	
9	내가 말을 해도 별일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49	
31	나와 대화는 하시지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다		.49	
27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많이 하시는 편이다		.46	
56	불편할 정도로 나의 기분이 괜찮은지 자주 확인하시는 편이다			.74
52	무조건 내 편을 드셔서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운 때가 있다			.71
14	부담스러울 정도로 내 걱정을 많이 하신다			.67
63	나의 부정적인 상태를 보고선 당황해서 어쩔줄 몰라 하신다			.64
49	나의 기분이 어떤 상태인지 항상 과하게 신경을 쓰신다			.59
62	나의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초조해 하신다			.56
7	나의 기분을 자주 물어보셔서 힘들다			.53
51	내가 왜 그런지 묻지도 않은 채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겠다고 하신다			.53
42	나보다는 어머니가 더 힘들어 하신다			.48
35	나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셔서 어머니에게는 기분을 감추려고 하신다			.44
10	내가 어린아이가 된 느낌이 들 정도로 모든 말을 다 받아 주신다			.43
초기 고유값		9.83	5.25	1.81
설명변량		20.09	11.42	10.72
누적변량		20.09	31.50	42.22

1.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 예비척도의 구인타당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 예비 척도는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제해결적 수용반응’, ‘차별적 무시반응’, ‘과잉 수용반응’의 3요인인 총 39문항으로 구성됨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척도의 구성은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측정하는 대표적 척도인 CCNES(Fabes et al., 1990)에서 구성하고 있는 6개의 하위요인에 비해서는 축약된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몇 가지로 논의해 보자면 먼저, CCNES는 이론적 근거를 통해 구인을 개발한 척도이고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였지만(Fabes et al., 2002), 요인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아 구성요인의 적합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또한, CCNES는 부모가 보고하는 방식이고 본 예비 척도는 청소년이 보고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점에서도 차이점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즉, 어머니는 다양한 의도를 갖고 반응을 하고 또는 자녀에게 다양한 감정을 드러낸 태도를 보였을지라도 자녀가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정적 정서표현을 지지하는 태도에 있어서 하위요인이 다양하게 나뉘지만 본 예비척도의 결과에 보듯이 자녀가 지각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져 어머니의 긍정적인 지지태도로 대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에 타인에게 표현될 때 타인이 공감을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더 중요하며(Barrett-Lennard, 1981), 부모의 공감을 측정함에 있어서도 부모의 의도나 행동이 아닌

자녀가 지각한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연구결과(Trumpeter, et al., 2008)를 고려해 볼 때, 자녀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에서 나타난 구인이 보다 적절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Gottman(1997)은 자녀의 부정적 감정에 대한 부모의 태도 및 행동을 관찰방법과 인터뷰 방법(Gottman, et al., 1996)으로 지속적인 추적 연구를 한 결과 부모의 양육방식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자녀의 부정적 감정은 부정적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느끼게끔 감정을 무시하는 축소전환형,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을 비난하고 처벌하는 억압형, 지나치게 관대하며 한계를 정해 주지 않는 방임형,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감정을 수용하고 한계를 정해주며 문제 해결 방안을 안내해주는 감정코칭형으로 나뉘어 진다. 이 중 방임형은 본 예비척도의 ‘과잉 수용 반응’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며, 억압형과 축소 전환형은 본 예비척도의 ‘차별적 무시 반응’에 포함된 개념을 반영한다. 감정코칭형 역시 본 예비척도의 ‘문제해결적 수용반응’과 유사한 개념으로 관련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예비척도에서는 기존의 PACES에서는 배제되고 CCNES에서는 지지적인 태도의 일부분이었던 측면 즉,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하게끔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태도가 ‘문제해결적 수용반응’의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기존의 지지적 정서수용태도로 대표되는 ‘수용 반응’, ‘격려 반응’ 등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즉, 자녀의 부정적 감정 표현을 수용하고 표출할

수 있게끔 격려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아이에게 감정을 조절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조언해주는 역할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자녀의 감정을 모두 수용하지만 부적절한 행동은 제한하고 아이에게 감정조절방법과 적절한 분출구를 찾는 방법 및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지지적 수용태도의 개념정의(Gottman, 1997)를 반영해 준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표현을 수용은 하지만 제한설정이 부족할 경우 자녀는 적절한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서혜린, 이영, 2008)에서도 나타나듯이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역할이 지지적 정서수용태도를 반영해 주는 적합한 요인인 것으로 여겨진다.

2.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 예비척도의 문항 양호도 및 신뢰도

본 예비척도의 문항 양호도 분석을 위해 문항 변별도를 검토한 결과 모든 문항이 정서수용태도의 하위요인 별 상, 하 집단을 의미 있게 변별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구성한 어머니 정서수용태도 예비 척도의 문항들이 비교적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예비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 α 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하위 요인 별 신뢰도 계수는 .85에서 .93 사이의 범위를 보여 기존의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정서수용태도 관련 척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 예비척도를 구

성하는 과정에서 타당도에 대한 검토로써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하였지만 준거관련타당도가 검토되지 못하였다. 추후 최종 척도 개발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방법의 타당도를 검토함으로써 척도의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예비척도는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으나 최근에는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기 시작하여 부모의 태도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척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아버지의 정서수용태도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요인이 구성될 수 있을 가능성이 고려되는바 추후 아버지를 대상으로 정서수용태도에 내재된 요인들을 추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본 예비척도에서는 부정적 감정표현 즉, 화나거나 슬프거나 불안한 감정들을 따로 구분하지 않은 채 문항을 제작하였다. 이는 부모가 부정적 감정마다 보이는 태도에 나타나는 차이(Casey & Fuller, 1994)를 살펴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불안해하거나 슬퍼하는 감정은 어머니가 수용해주지만 짜증을 내거나 화난 감정은 수용이 안 되는 경우인데, 이를 고려할 수 있는 추후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 예비척도는 관련 이론들을 기초로 내용을 구성하였을 뿐 아니라 척도의 요인구조를 탐색하였고, 신뢰도 및 문항 양호도를 검증함으로써 문항의 적절성을 갖추고 있다. 이는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고 또한, 청소년의 정서,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어 청소년기 모-자녀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한 개입과 중재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 예상해 본다.

참고문헌

- 김은경, 도현심, 김민정, 박보경 (2007).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 남녀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8(3), 115-131.
- 김지연, 남은영 (2011).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2(5), 13-28.
- 서혜린, 이 영 (2008).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 행동과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2), 33-56.
- 이순묵 (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 학사
- 이윤로, 유시순 (2009). 사회복지사를 위한 SPSS. 서울: 학지사
- 임정하, 정옥분 (2004).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인간발달연구*, 11(4), 55-73.
- 조수정, 도현심, 김상원 (2010). 어머니의 정서 표현 수용행동, 아동의 정서지능 및 문제 행동 관계. *아동학회지*, 31(6), 167-183.
- 조용주 (2010).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과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의 차이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23-1146.
- Barrett-Lennard, G. T. (1981). The empathy cycle: Refinement of a nuclear concep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91-100.
- Casey, R. J., & Fuller, L. L. (1994). Maternal regulation of children's emotions.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18, 57-89.
- Denham, S. A., & Kochanoff, A. T. (2002). Parental contribution to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emotion. *Marriage and Family Review*, 34, 311-343.
- Dix, T. (1991). The affective organization of parenting: Adaptive and maladaptive processe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3-25.
- Dunn, J., & Brown, J. R. (1994). Affect expression in the family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and their interactions with others. *Merrill-Palmer Quarterly*, 40, 120-137.
- Dunn, J., Brown, J. R., & Bear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448-455.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ar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Eisenberg, N., Valiente, C., Morris, A. S., Fabes, R. A., Cumberland, A., Reise, M., Gershoff, E. T., Shepard, S. A., & Losoya, S. (2003). Longitudinal relations among parental emotional expressivity, children's regulation, and quality of socioemotional functioning.

- Developmental Psychology*, 39(1), 3-19.
- Fabes, R. A., Eisenberg, N., & Bernzweig, J. (1990).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CCNES): Description and scoring*. Tempe, AZ: Arizona State University.
- Fabes, R. A., Leonard, S. A., Kupanoff, K., & Martin, C. L. (2001). Parental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and soci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72(3), 907-921.
- Fabes, R. A., Poulin, R. E., Eisenberg, N., & Madden-Derdich, D. A. (2002).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CCNE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competence. *Marriage & Family Review*, 34, 285-310.
- Gottman, J. M. (1997). *The heart of parenting: How to raise an emotionally intelligent child*. New York: Simon & Schuster.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3), 243-268.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7). *Meta-emotion: How families communicate emotionally*. Hillsdale, NJ, Englan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Juang, L. P., Lerner, J. V., Mckinnery, J. P., & Eye, A. (1999). The goodness of fit in autonomy timetable expectations between Asian-American late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 1023-1048.
- Katz, L. F., & Hunter, E. C. (2007).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atology. *Social Development*, 16(2), 343
- Klimes-Dougan B., Brand, A. E., Zahn-Waxler, C., Usher, B., Hastings, P. D., Kendziora, K., & Garside, R. B. (2007). Parental emotion socialization in adolescence: Differences in sex, age and problem status. *Social Development*, 16, 326-342.
- Shortt, J. W., Stoolmiller, M., Smith-Shine, J. N., Eddy, J. M., & Sheeber, L. (2010). Maternal emotion coaching, adolescent anger regulation, and siblings' externalizing sympto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1(7), 799-808.
- Siegel, D. J., & Hartzell, M. (2004). *Parenting from the inside out*. New York: Penguin.
- Stocker, C. M., Richmond, M. K., Rhoades, G. K., & Kiang, L. (2007). Family emotional processes and adolescents' adjustment. *Social Development*, 16, 310-325.
- Strayer, M., & Roberts, W. (2004). Children's ang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empathy; Relations with parents' empathy,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arenting practices, *Social Development*, 13, 230-254.
- Tao, A., Zhou, Q., & Wang, Y. (2010)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prospective relation to Chinese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4(2). 135-144.
- Trumpeter, N., Watson, P. J., O'leary, B. J., &

- Weatherington, B. L. (2008). Self-functioning and perceived parenting: relations of parenting empathy and love inconsistency with narcissism, depress, and self-esteem.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9*, 51-71.
- Yap, M. B. H., Allen, N. B., Leve, C., & Katz, L. F. (2008).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socialization of adolescent affect: The moderating role of adolescent tempera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5), 688-703.
- Yap, M. B. H., Allen, N. B., & Sheeber, L. (2007). Using an emotion regulation framework to understand the role of temperament and family processes in risk for adolescent depressive disorders. *Clinical Child & Family Psychology Review, 10*, 180-196.
- 1차원고접수 : 2012. 1. 3
수정원고접수 : 2012. 2. 18
최종게재결정 : 2012. 3. 2

A Preliminary Study on Mothers' Attitudes on an Emotional Acceptance Scale as Perceived by Adolescents

Cho, You jin

Dept. of Social Welfare
Induk University

Oh, Ji hyun

Dept. of Child Welfar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emotional acceptance scale for mothers' attitudes as those attitudes are perceived adolescents. This was done in order to construct a mothers' attitude on emotional acceptance scale, and to verify the suitability of questionnaires, their validity, and credibility according to the scale thus developed.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352 adolescents.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hi-Square test and reliability analysis. The results from the factor analysis revealed three principal factors(problem-solving supportive reaction, punitive neglect reaction, over-acceptance reaction). In terms of statistical results, the item discriminant coefficients, Cramer's V ranged from .35 to .67, and in terms of the reliability result, Cronbach's α ranged from .85 to .93. Therefore, this study can be said to be meaningful in terms of the preliminary aim; that is acting as a preliminary research exercise for developing an emotional acceptance scale of mothers' attitudes.

Key words : Mothers' Attitude on Emotional Acceptance, Mother-Adolescent Emotional Interaction, Emotion-Socialization Behavior, Inventory Development